



오늘의 날씨와 생활

2월 22일 월요일 음 1월 11일 (3월)

기상정보

대체로 맑음



대체로 맑고,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1-13℃, 낮 최고기온은 17-20℃를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에서 1-2.5m로 일겠다.

Table with 4 columns: 오전, 강수 확률, 제주, 오후. Rows show 0% precipitation and 0% chance of rain/snow.

Table with 2 columns: 해돋이, 달뜨기. Rows show times for sunrise (07:11) and sunset (13:16).

Table with 2 columns: 내일, 구름 많음. Rows show weather and temperature (4/14°C).

Table with 2 columns: 생활·안전 기상정보, 식중독지수. Rows show food safety index (관심) and visibility (보통).

월드뉴스

미, 95세 나치부역자 독일 추방

75년 만에 발견된 근무카드로

과거 독일 나치의 강제수용소 경비병으로 근무한 90대 노인이 미국에서 독일로 추방됐다.



추방 명령 받은 베르거의 옛 사진.

2차대전 후 캐나다를 거쳐 미국에 정착했지만 침묵한 배에서 발견된 근무카드로 인해 부역 사실이 드러나 결국 75년 넘게 지나 95세의 고령에 추방되는 운명을 피하지 못했다.

베르거가 전시 복무를 포함한 독일에서 고용된 것에 근거해 독일로부터 연금을 받는 사실도 추방 결정의 근거가 됐다. 그는 독일 해군에서 근무하다 2차 대전 마지막 몇 달간 이 수용소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베르거는 당시 자신이 수용소에서 근무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잠시 머물렀을 뿐이며 무기도 소지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현지시간 20일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테네시주에 거주하는 독일 시민권자 프리드리히 카를 베르거가 2차 대전 때 독일 합부르크 인근 노이엔가메 강제수용소 산하 수용소에서 근무했다고 판단해 추방을 명령했다.

베르거는 1945년 영국과 캐나다 군이 이 수용소로 진격할 당시 수용자들을 본 수용소로 강제 이동시킬 때 경비를 담당했다.

몇 년 뒤 침묵한 배에서 서류를 건

져냈고, 법무부의 역사 담당자들은 이를 통해 베르거가 수용소에서 복무한 기록을 찾아냈다.

베르거가 전시 복무를 포함한 독일에서 고용된 것에 근거해 독일로부터 연금을 받는 사실도 추방 결정의 근거가 됐다. 그는 독일 해군에서 근무하다 2차 대전 마지막 몇 달간 이 수용소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베르거는 당시 자신이 수용소에서 근무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잠시 머물렀을 뿐이며 무기도 소지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리일보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website, phone, and address.

백록담

청년이 떠나는 위기의 제주



문미숙

경제산업부장

지난해 제주에는 3378명의 인구가 순유입됐다. 2014~2017년 4년 연속 1만명 넘는 인구가 순유입됐던 데 견주면 순유입인구의 증가폭 축소가 뚜렷하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 연속해서 인구가 순유입됐지만 그 이전 10년(2000~2009년)동안 인구가 순유입된 해는 2002년(234명)이 유일했을만큼 인구의 탈제주 현상이 뚜렷했던 경험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20대의 인구 순유출과 함께 지난해 제주지역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은 6.8%로 관련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후 가장 높았다. 청년 고용률도 지난해 41.6%로 2013년(41.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2000년 이후 도내 20대 취업자 수를 보면 2000년 5만4000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 2010년엔 3만5000명까지 줄어들었다.

청년이 떠나고, 호감도가 떨어지는 제주의 미래는 밝을 수 없다. 제주는 물론 인구절벽에 직면한 전국 곳곳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청년 정책에 공들이는 이유일 것이다. 서울시가 2015년 1월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한 후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달아 관련 조례를 만들었고, 제주도는 2016년 '제주도 청년기본 조례'를 제정했다.

청년정책으로 주목받는 전북 완주군은 전국 군 단위 최초로 2016년 사회적경제과에 청년정책팀을 신설하고, 같은 해 12월 청년기본조례 제정과 청년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청년 완주 JUMP 프로젝트' 추진과 올 1월에는 13개 읍면을 대표하는 청년이장단 선정 등 청년의 삶 전반에 걸친 통합정책을 추진하며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을 균형으로 줄어드는 등 최근의 청년 관련 지표들이 심상치 않아 우려를 키운다.

열린마당

코로나19, 힘을 합쳐 이겨내자



김정협

제주자치경찰단 차장경사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전세계가 큰 어려움에 빠졌고, 또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온 틀이 바뀌는 초유의 현상을 겪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치경찰단에서도 코로나 19사태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자체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감염 예방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현재 자치경찰은 보건 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관련 현장지원 요청시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CCTV 분석을 통한 확진자 역학조사, 격리

시설 질서유지, 타 지역으로부터 감염 유입 차단을 위한 공항만 방역, 유흥시설, 헌팅포차, 스킨골프장 등 고위험시설 및 방역사각지대 특별점검을 강화도 높게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자치경찰은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관광지 등 방역지침 지도 및 홍보 활동 또한 병행해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회복과 활성화를 위해 동계전지 훈련 에스코트, 재래시장, 대형마트 교통관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예방을 위한 불법 대부업 단속 활동 병행 등 코로나 19로부터 청정제주와 관광객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언제나 그랬듯이 위기가 오면 우리 국민은 함께 힘을 합쳐 위기를 헤쳐나왔던 지혜와 저력이 있다. 지금 이순간 그 지혜와 저력의 근원은 단 순하고 자명하다. 바로 국가에서 제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나부터 성실히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자치경찰관 모두는 이 위기의 극복을 위해 그 근본을 지켜내는 일에 오늘도 정성을 다할 것 이다.

불나면 대피 먼저 행동의 원칙!



강성근

제주동부소방서 현장대응과 소방위

소방설비는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다. 60~70년대는 '화재신고는 119', 80~90년대 '자나깨나 불조심', 2000년대는 '집집마다 소화기, 방마다 화재경보기 설치'와 같이 시대에 맞는 슬로건을 정해 홍보해왔다. 현재는 화재 발생 시 일단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119로 신고하라는 '불나면 대피 먼저'라는 슬로건으로 사용하고 있다.

작은 불이 아니면 소화기로 끄기 쉽지 않고 오히려 대피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들이 늘고 있다. 전체 화재 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인명피해·사망자 발생 비율이 느는 것도 대피가 늦어진 원인으로 분석된다.

대피의 중요성은 과거 사례를 보면 나타난다. 2018년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환자와 의사, 간호사 등

45명이 숨지고 147명이 다쳤는데, 당시 병원 직원들이 1층에서 소화기 7개, 3층에서 소화기 2개를 사용해 불을 끄려고 노력했지만 오히려 대피가 지연되는 바람에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다. 반면 2019년 천안에 한 초등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안내방송과 직원들의 피난유도로 910명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다.

화재 발생 시 피난시설은 생명의 문이다. 하지만 옥상 비상출입문이 자동 개방되도록 하는 비상문 자동폐쇄장치 전원을 끄거나, 비상계단과 복도에 불을 쌓아뒀 대피를 방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제주에서는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건물 내 불법행위와 관련해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 시민은 누구든지 119센터와 소방서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자에게는 현장 확인과 심의회를 거쳐 포상금이 지급된다.

불나면 대피 먼저는 행동의 원칙이다. 상황이 따라서 불을 먼저 끄거나 119로 신고를 할 수도 있다. 다만 소화기 사용이 익숙지 않거나 어린이, 노인 등 재난 약자는 무조건 대피하는 것이 좋다.

Advertisement for Jeju Hallyeong Farm (제주한라농원) featuring domestic product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Hanlim Farm (한림종묘) featuring various plant varieti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Gamgul Farm (감굴) featuring various plant varieti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Gamgul Farm (감굴) featuring various plant varieties and contact information.